

보도 일시	2022. 3. 31.(목) 조간 2022. 3. 30.(수) 11:00	배포 일시	2022. 3. 30.(수) 06:00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책임자	과 장 김규섭 (044-200-5980)
		담당자	사무관 김용수 (044-200-5981)

해수부, 지역과 함께 금란도·장항항의 미래를 그린다

- 군산·서천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상생협의체 출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노후·유휴시설인 금란도와 장항항을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해양수산업과 지역 생활·문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3월 31일(목)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서천군이 참여하는 ‘지역상생협의체’를 발족시킨다고 밝혔다.

금강하구에 있는 군산항과 장항항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항만으로 지속적으로 토사가 매몰되어 매년 준설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정부는 1980년부터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의도의 0.7배(202만㎡)에 달하는 투기장(금란도*)을 군산항과 장항항 사이에 단계적으로 조성해왔다.

*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해당 준설토 투기장 명칭을 금란도(金卵島)로 결정(2013.10.)하였으며, 2022년까지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될 예정

금란도는 군산시 원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 그 동안 지속적인 개발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금강하구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는 서천지역의 이견으로 실제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와는 별개로 서천지역의 장항항 어항부두는 인근에 새로 조성된 어항부두로 어업 지원 기능이 이전되고 있어 기존 어항부두의 정비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금란도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장항항 어항부두와 연계하여 개발하기 위해 2020년 12월 충청남도, 전라북도, 군산시, 서천군과 함께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계획을 반영하고, 이번에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서천군이 참여하는 ‘지역상생협의체’를 발족시키게 되었다.

이번에 발족하는 ‘지역상생협의체’는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서천군 등의 추천을 받아 지역을 대표하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주민대표, 관계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산항·장항항과 관련한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정책 조언자이자 기획자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역상생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군산항·장항항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등 관련 연구용역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지역상생협의체 출범은 군산과 서천이 함께 금란도와 장항항을 활용해 중부권 해양관광·문화거점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군산항·장항항의 재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상생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추진 배경

- 군산·서천지역 전문가, 주민대표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군산항·장항항의 지역상생 재개발방향 등 설정 필요

□ 지역상생협의체 개요

- (기능) 군산항·장항항 재개발 등 지역상생협력 관련 자문 등
- (구성)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항만·해양, 도시·건축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관계기관 책임자급 등 19명으로 구성
* 추천 기관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전라북도, 군산시, 서천군
- (운영) 위원임기는 1차 회의 개최일('22.3.31.)로부터 2년으로 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필요시 수시개최)

□ 1차 회의계획

- (일시/장소) '22. 3. 31(목) / 군산
- (참석대상) 협의체 위원, 해수부, 충남도, 전북도, 군산시, 서천군 등
- (회의내용) 협의체 운영·규정(안) 논의·확정, 군산항·장항항 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추진계획, 개발방향 등 논의

<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개요 >

- 용역비/기간 : 500백만원 / 착수일로 12개월
- 용역내용 : 군산항 금란도 및 장항항 구)어항부지를 연계한 항만재개발 사업을 도모코자 수요분석, 토지이용계획, 사업화 전략, 사업시행 공모(안) 등을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22. 4. : '군산항·장항항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마련 용역' 발주
- '22. 6. : 지역상생협의체 2차 회의 개최

참고 2

군산항 · 장항항 재개발 대상지 현황

□ 군산항 금란도 현황

- ▶ (시설개요) 1980년~2008년까지 4개 공구로 나눠, 단계적 호안 건설(L=3.9km, B=470m)
- ▶ (매립현황) 2차 증고를 통해 매립 중에 있으며, 현재 3차 증고 후 투기중
 - * 2018년까지 1·2차 증고 완료(+3m), 2019년 3차(3,4공구, +2m) 증고 완료
- ▶ (조성면적) 총 202만㎡(61만평)
- ▶ (향후계획) 지속적인 유지준설토 처리(90만㎡/년)를 위해 '22년까지 투기장 활용



□ 장항항 구어항부두 현황

- ▶ (시설개요) 어선부두 850m, 1만톤급 2선석('01년 준공), 잔교 등(하역능력 1,480천RT/년)
- ▶ (이용현황) 항내매물, 시설노후, 수면적 부족 등으로 이용성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
 - * '16년 장암리에 신규 조성된 소형선부두(820m)로 기능이전 중으로 이전 완료시, 유휴화 예상
- ▶ (면적) 57,556㎡(1.7만평)



□ 군산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군산항 금란도(준설토 투기장)
- (개발방향) 해양관광, 체험, 문화 등 복합시설을 도입한 지역랜드마크 조성 및 군산시 원도심의 역사문화, 새만금 지구 등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면적) 2,023천m²
- (주요시설) 녹지, 중앙공원, 수변 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등
- (토지이용 구상(안))

구 분	주요 도입시설	기능의 복합	면적비율(%)
해양문화 관광지구	· 상징성 있고 예술적인 건축물 계획으로 랜드마크 역할 · 다양한 여가 및 관광활동 수용	·주기능 : 관광·휴양기능 ·부기능 : 상업·업무기능, 문화·전시기능	55.0
공공시설 지구	·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입지	·주기능 : 녹지, 중앙공원, 수변 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등 ·부기능 : -	45.0

주) 공공시설지구 비율은 타지구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포함한 비율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비율 확보를 위한 총량개념으로 제시

□ 토지이용 구상[안]



□ 장항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신창리 구)어항구 일원
- (개발방향) 주변 근대문화유산(장항미곡창고)등의 관광자원과 연계개발 및 수변 친수공간 확대를 통해 지역문화생활거점으로 조성
- (면적) 58천㎡
- (주요시설) 공원, 녹지, 수변시설, 보행자전용도로, 주차장 등
- (토지이용 구상^[안])

구 분	주요 도입시설	기능의 복합	면적비율(%)
해양문화 관광지구	· 주변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지 조성	·주기능 : 관광·휴양기능 ·부기능 : 상업·업무기능, 문화·전시기능	25.0
복합산업 물류지구	· 지역특색을 고려한 수산물 및 항만관련 지원시설 조성	·주기능 : 산업, 물류기능 ·부기능 : 상업·업무기능, 문화·전시기능	25.0
공공시설 지구	· 공공시설을 집중 배치하기 위한 부지로 제공(항만시설, 공원, 수변광장 등)	·주기능 : 공원, 녹지, 수변 시설, 보행자전용도로, 주차장 등 ·부기능 : -	50.0

주) 공공시설지구 비율은 타지구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포함한 비율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비율 확보를 위한 총량개념으로 제시

□ 토지이용 구상^[안]

